

지역 매 아리

완주 도시재생 전략 수립

제2회 김제시 청소년 어울림마당

청소년들이 주인공이 되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참여하는 문화·예술·놀이 체험장인 '2018년 제2회 청소년어울림마당'행사가 19일 오후 1시 30분부터 김산체육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연다.

어울림마당은 화분킵케이크·삼색에이드, 떡볶이 등 먹거리체험과, 잔디인형·캐릭터 LED조명스탠드·매듭팔찌 만들기 체험, 풍아리(자율)공연, 이벤트 게임(청소년·관람객 참여형 이벤트 게임)등으로 진행되며, 참가자격은 지역에 상관없이 청소년들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당일 관람객을 위한 즉석 장기자랑 시간과 공연마당 틈틈이 레크레이션 및 놀이마당을 알차게 기획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구명석 체육청소년과장은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하여 온가족이 함께 즐기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학업 등에 지친 스트레스를 다 날려버리고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보건소

아토피·천식 안심기관 확대 운영

김제시보건소(소장 김형희)는 아토피·천식 안심기관을 2017년도 4개교에서 관내 학교의 높은 호응도에 부응하여 2개교를 더 선정, 올해는 6개교를 운영한다.

지난 5월 10일 환산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을 시작으로 6월, 9월 등 연 3회기에 걸쳐 운영된다.

아토피·천식 안심기관이란 아토피 피부염, 천식, 알레르기비염 등의 질환이 있는 아동들에 대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보건소와 학교가 연계하여 추진하는 예방관리 사업이다.

안심학교 운영은 전문원예학과 교수를 초빙하여 실내습도 조절을 위한 토 피어리 만들기, 야간 일산화탄소 제거를 위한 다육이 액자 만들기 등의 환경조성을 위한 체험학습과 "아토피 마왕을 잡아라" 등 구연 및 동영상 상영 등 아토피 질환에 대한 예방, 관리 교육을 학령기 아동의 눈높이에 맞춰 제공한다.

아울러 부모들에 대하여도 아토피 질환의 생활 속 예방과 아토피질환 환자 관리에 대한 올바른 지식 등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에 시보건소에서는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질환이 완화 될 수 있도록 안심기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정부 도시재생 뉴딜정책 일환... 경제활성·일자리 창출 도모

완주군이 도시 경쟁력 제고와 노후 시가지의 도시기능 재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한다.

14일 완주군에 따르면 이번 용역은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따른 것으로 국도비 등 연평균 2조원의 재정을 재생지역에 집중적으로 연계·지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완주군은 이에 발맞춰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맞춤형 도시재생 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도시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내 도시지역인 삼례읍, 봉동읍, 용진읍 등 8개 읍면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전략계획과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봉동읍 장기리, 낙령리, 신성리 일원에 대한 활성화계획수립, 주민공동체 역량강화, 도시재생대학 운영 등이다.

완주군은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1년간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잠재력과 법적·제도적 기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특성을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과 주민여론을 수렴해 완주군에 적합한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계획을 수립해 전라북도의 최종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도시재생 계획에는 도시재생의 정책방향과 목표·비전 제시, 도시재생 구상 및 전략,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 및 재원조달방안 등이 포함되며, 이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모할 계획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계획수립 단계부터 모든 과정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지역혁신가' 발굴 앞장

6월 25일까지 국가균형발전위 홈페이지 접수

김제시(권한대행 이후천)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이하 균형위)의 계획에 의거 사람 중심 국가균형발전 실현과 지역혁신체계의 구축·활성화를 위해 '지역혁신가'를 발굴한다.

14일 김제시에 따르면 이번 평가선

정은 문화예술, 생태환경, 산업경영, 과학기술, 교육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지역의 변화·발전을 이끌어내는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여 확산시키기 위한 취지다. 발굴 추천은 6월 25일까지 균형

위 홈페이지(www.balance.go.kr)를 통해 가능하고, 심사는 선정위원회를 거쳐 아이디어의 혁신성, 가치 창조력, 사회적 영향력 등을 기준으로 실시되며, 9월중 선정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박민우 기획감사실장은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묵묵하고 꾸준하게,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이 바로 지역혁신가"라며 "지역발전의 핵심주체인 이들을 적극 지원하여 사람중심 국가균형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성주 민주평화당 김제시장 후보 공약 발표

새만금 내부개발지역 김제시 행정구역 귀속 등

민주평화당 정성주 김제시장 후보는 14일 핵심공약 5대 사업과 세부실천공약 6개 분야 22대 사업 등 총 27대 공약사업을 확정했다.

핵심공약은 새만금 내부개발지역 김제시 행정구역 귀속, 김제역사 이전 및 동부권 개발사업 추진, 김제시 예산 규모 1조원시대 개막, 김제공항부지의 제2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 추진, 농업예산 확충 및 역대농가 3,000세대 육성 등이다.

정성주 후보는 타 후보의 공약과 차별화되고 실현 가능한 사업위주의 세부 실천공약 6개 분야 22대 사업 개발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밝히면서 향후 완성된 공약을 도시성장, 새만금, 농업발전, 사회복지, 지역경제, 지방자치 등 분야별로 발표해 나가기로 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성주 후보가 이날 발표한 도시성장분야의 주요공약은 핵심 5대 공약 중 김제역사 이전 및 동부권 개발사업 추진과 김제공용버스터미널 이전 및 복합터미널 조성 추진, 김제경찰서 이전 및 시민센터관광 조성 추진, 제2백구특장차전분단차조성 등 4가지 사업이다.

특히 정 후보는 김제역사를 이전 동부권 발전의 축으로 삼고 김제공용버스터미널을 이전하여 서부권 발전의 기틀로 삼는다는 김제도시발전의 원대한 포부를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희망·내일키움통장 가입자 김제시 자립역량교육 실시

김제시는 지난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희망·내일키움통장 가입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자립역량 교육을 고용·복지 공동교육관에서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희망·내일키움통장사업 가입자의 통장유지와 '평생월급 프로젝트'를 주제로 자산형성사업에 대한 안내 및 금융·재무설계 등으로 진행됐다.

희망·내일키움통장사업은 저소득층 근로유인보상과 자활·자립을 위해 제반 요건을 충족하는 가입자가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근로장려금을 매칭 지원하여 3년 후 탈수급시 적립된 적금과 장려금을 지원해주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은 30명의 가족들과 충남 태안군 매화동범마을에서 지난 12일부터 1박2일간 일정으로 '꿈희망여행 가족힐링캠프'를 진행했다.

"꿈희망여행 하고 왔어요"

완주군 드림스타트, 1박2일 가족힐링캠프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해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완주군 드림스타트가 가족힐링캠프를 진행, 가족 간 소통의 기회를 마련했다.

완주군은 30명의 가족들과 충남 태안군 매화동범마을에서 지난 12일부터 1박2일간 일정으로 '꿈희망여행 가족힐링캠프'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캠프에서는 문화생활에 소외된 드림스타트 아동들을 위해 체험활동 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운영됐다.

1일차에는 장뇌삼화분만들기, 동병체험(맨손으로 물고기잡기), 오감만족(두부 만들기) 활동을 통해 가족 및 또래 친구들과 친교를 다졌고, 저녁에는 모두 한자리에 모여 마음나누기, 장기자랑, 바비큐파티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2일차에도 시골밥상 경험하기, 삼색쌀진빕 만들어주기, 신두리

해안사구탐방 등 알찬 시간을 보내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특히, 이번 캠프에서는 여행분 위기를 물신 느끼게 하는 캠프과 이어가 진행돼 어른부터 아이까지 가장 호응이 컸다.

참여자들은 그동안 가족들과 여행에 다녀오고 싶었지만, 가정상황 때문에 여의치 못했는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다며 감사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김모 아동은 "평소 가족들과 말할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로 가족들과 친해지고 그동안 TV로만 봤던 것들도 직접 해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고 말했다. 정희정 교육아동복지과장은 "이동전화도시 완주군에서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발달을 위해 앞으로도 가족단위의 프로그램을 적극 권장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완주=이종복 기자

'농업도 정보화시대' 완주군 농업인정보화 교육

완주군의 농업인 정보화교육이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

14일 완주군은 지난 1월 11일부터 5월 9일까지 희망농업인 60명을 대상으로 '2018년 농업인 정보화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총 42회 과정으로 126시간(한글 26회 78시간, 엑셀 16회 48)에 걸쳐 한글과 엑셀의 다양한 기능들을 학습했다.

특히 예제를 통해 미션을 수행해 개인별 실력향상 등 정보화 선도 농가 양성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으며, 입학금 60명중 52명이 수료했다.

교육 마무리와 함께 진행된 만족도 조사에서는 교육생 93%가 높은 만족

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오형희(봉동읍)교육생은 "바쁜 영농 활동을 하면서 하나라도 더 배우자는 마음으로 열심히 교육에 임했다"며, "특히 한글과 엑셀 활용 기능 등을 심도 있게 알게돼 매우 인상 깊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중옥 완주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교육이 진행될수록 교육생들이 자신감을 가지므로써 정보화 수준이 월등하게 높아진 점이 매우 인상 깊었다"며, "정보화시대에 발맞춘 선도 농업인로 발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대한민국 홍삼 특구 진안고원

세계주류품평회 금상

眞心 홍삼주

진안고원 JINHWANG-GUWON